



다가교 아래에서 김장거리를 씻고 있는 학생들 ॥ 1930년대 ॥ 유한길 소장 ॥ A30-0130

기전학교 기숙사 학생들이 다가교 아래에서 김장거리를 씻고 있는 사진이다. 다가교는 1920년 홍수로 유실되자 박기순이 1만원을 기부하여 철근콘크리트 교각에 나무 상판을 얹은 다리를 만들었다. 이때 다리의 교각이 'H'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1936년 8월 대홍수로 이 다리는 1/3이 유실되어 이 위치보다 약 20미터 상류로 옮겨 1937년 3월에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이 사진은 1937년 이후의 사진이다.